



■ 제지계는 지금

디지털인쇄기 전용 용지 본격 출시

한국제지 ● 시장선점 나서 무림페이퍼 ● 내수시장 영업강화

대형 제지사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쇄용지의 개발과 판매가 활성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디지털 인쇄가 본격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디지털 인쇄용 전문용지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지 및 관련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제지, 무림페이퍼 등은 해외 시장 개척과 함께 국내 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주요 인쇄기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디지털인쇄기의 판매에 나서는 등 본격적으로 디지털인쇄의 비중이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인쇄는 기존에 필름을 사용하던 오프셋 방식과

달리 컴퓨터에서 작업한 내용을 직접 인쇄하는 방식이다. 편집, 필름제작, 교정 등의 공정을 대폭 줄였고 시간을 단축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인쇄는 간접 비용절감 효과도 크며 특히 소량 주문형 인쇄(POD: Printing On Demand) 방식에 적합하기 때문에 최근 소규모 인쇄사와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인쇄업계의 관계자들은 인쇄사에서 이전 방식으로 작업에 들어갈 경우 수 천부 이상의 대량 인쇄를 해야만 하는 한계가 있었지만 디지털 인쇄는 300~500부 이하



소규모 주문에도 대응할 수 있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디지털 인쇄기를 사용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맞춤형 교재 제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나 대형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한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디지털 인쇄용 전문 용지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지사들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한국제지는 지난해부터 디지털인쇄 전문용지인 '하이퍼씨씨 프로'를 선보이고 있다. A4용지 장당 무게를 100g 정도로 늘렸으며 인쇄 품질 또한 기존 수입 컬러 전용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가격은 3분의 1 정도로 낮췄다. 한국제지는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디지털 인쇄용지시장의 선점에 나설 계획이다.

무림페이퍼도 지난 2004년부터 '프로디지털'이란 브랜드를 개발, 시판했지만 주로 미국, 영국, 호주 등 해외 수요 개척에 치중했다. 지난해까지의 판매량은 월 400t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시장 여건 호전에 따라 매월 800t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며 올해 새롭게 리뉴얼한 샘플북을 마련해 영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전용용지'를 내놓는 대신 '네오클린폴라리스' 등 기존제품군에 편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무림페이퍼는 다품종 소량 인쇄시장 및 주문형 인쇄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디지털 전용지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영업에 심혈을 기울여 온 바 있다. 올해 이후 국내 시장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언제든지 판매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한국제지의 하이퍼씨씨 프로



무림페이퍼의 네오클린폴라리스로 인쇄한 책자

한솔제지는 아직 디지털 인쇄용 전용지를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인 대응에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들 외에는 아직까지 디지털 인쇄 전용지 개발 및 판매에 나설 업체들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시장의 분석 등 동향 파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디지털인쇄가 출력시간을 개선시킴에 따라 고객만족도 및 시장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어 기존의 아날로그 시장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제품 라인업이나 어플리케이션, 솔루션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2008년을 계기로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제지업계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간에 디지털인쇄용지의 개발과 시장의 수요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